

시장님 메시지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

히라카타시 시장인 후시미 다카시입니다. 올해에 들어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간사이 3 부현에서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가 적용된 것으로부터 오사카부는 1월 27일에 음식점의 주류 제공의 자숙이나 단축 영업 혼잡한 장소로의 외출·이동의 자숙과 같은 조치를 부민에게 요청했습니다. 기간은 2월 20일까지의 25일간입니다.

감염 급확대의 요인으로 생각되는 변이바이러스 “오미كرون 주식”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신규 감염자가 굉장한 기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요양자의 급증에 따른 역학 조사나 요양자의 건강 관찰과 같은 보건소 업무가 다시 궁핍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요양자수는 현시점으로 작년 여름의 제 5 파 피크의 2 배 이상이 되는 2500 명을 넘어 한층 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5 파에서의 경험에 입각하여 감염자수의 증가에 응한 증원 등 보건소의 업무 체제를 강화했습니다만 감염이 상정을 훨씬 넘는 스피드로 퍼진 것으로부터 요양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다시 크게 늦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를 받아 오사카부는 자택 요양자의 건강 관찰은 중증화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는 것과 동시에 농후 접촉자의 조사나 검사를 감염이 확인된 사업자나 학교에 부탁하는 것 등 보건소 업무의 재검토해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라도 증상의 악화나 중증화를 막는것을 최우선으로 이 방침을 따라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화율이 낮다고 여겨지는 오미كرون 주식의 특성을 근거로 한 대응입니다만 그래도 감염자수가 늘어나면 입원하는 사람의 절대수는 늘어납니다. 오사카부로는 병상 사용율이 50%를 넘어 코로나 경계신호는 적색이 점등해 코로나 이외의 병에서의 입원이나 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백신 접종은 3 회 접종하는 것으로 오미쿠론 주식에 대해서도 중증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어 희망하시는 쪽이 하루라도 빨리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우리 시라도 스케줄을 앞당김하고 있습니다. 접종권은 2 회째 접종 완료일부터 약 6 개월 후에 차례차례 송부하고 있으므로 자택에 도착할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또 나라에 의한 육아 세대예의 임시 특별 급부금 10 만엔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한도액을 넘는 쪽이나 이혼 등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쪽에 대해서도 시 독자에 지급하는 것 외에 감염 대책의 부담이 늘어나는 임산부에게도 10 만엔의 지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탁아소나 유치원 초중학교에서도 감염이 퍼져 등원이나 등교에 불안을 느끼는 아이나 보호자 분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초중학교에서는 온라인에 의한 자택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수업을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기능 유지 때문에 필요한 보육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 수 있는 한의 대책을 실시해 제공의 유지에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편 임시 휴업이 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 보호자에게는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감염 확대가 들어가지 않는 중 어려운 상황하에의 시설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무쪼록 이해해 주세요.

맹위를 흔드는 오미쿠론 주식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손을 씻는등 소셜 디스토폰스와 같은 감염증 대책의 기본을 철저히 해 감염자를 늘리지 않는 가능한 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염하지않는다 감염시키지 않는다” 대책을 취하면서 이 제 6 파를 넘어 갑시다.

레이와 4 년 1 월 28 일

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